【學會消息】

▩ 丘秉朔教授「韓國古代法史」發刊 ▩

本會 會員인 丘秉朔 敎授(高麗代 法大)는 1984년初에 그동안의 한국고대법사에 관한 논고를 묶어 「韓國古代法史」(高大出版部, 1984.1)라는 題下에 아담한 小册字로 발간하였다. 著者는 머리말에서 한국법제사개론의 제 1 단계로서 本書를 출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귀중한 업적이 나온 것을 축하하며 이것이 한국법사학계에 계속적인 活力素가 되기를 바란다.

▩ 새로나온 法史學 博士學位論文 ▩

실로 오래간만에 法史學 分野에서 박사학위논문이 나왔다. 話題의 主人公은 金在文. 그는 「朝鮮王朝의 擔保制度에 관한 硏究」라는 제목으로 1983년 東國大學校 大學院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同논문의 체제는 크게 5개의 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 1 장 序論, 제 2 장 人的擔保制度, 제 3 장 實定法上 賣買形態에 의한 物的擔保制度, 제 4 장 貸借形式에 의한 物的擔保制度, 제 5 장 結論의 순서로 되어 있다. 필자는 資料의 入手와 先行硏究의 不足으로 마치 황무지를 개척하는 자세로 연구에 임하였다고 하며 그 중에서도 特히 제 2 장의 人的擔保制度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선구적인 업적으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고 하겠다. 많은 관심과 후원이 있기를 바란다.

▩ 法史學硏究會 발족 ▩

젊은 학도의 법사학연구열을 진작하고 토론과 정보교환을 통하여 연구를 심화시켜보자는 취지로 대학원생과 신진학자들을 중심으로 법사학연구회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격월로 정기집회를 갖고 발표와 토론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회원은 다음과 같다. 金在文(동국대 경주캠퍼스 조교수), 李昌鎬(법제처 전문위원), 沈義基 (영남대 전임강사), 池哲瑚(서울대 박사과정), 李喆雨 (서울대 박사과정), 金池洙, 이호규 (서울대 석사과정), 金成珍 (司法硏修院), 본회에 가입을 원하거나 관심이 있는 분은 회원에게 연락하기 바란다.

▩ 朴秉濠 敎授 국제회의 참석

본회의 初代幹事 朴秉濠 敎授는 1983년 9월 1일부터 7日까지 日本 東京과 京都에서 개최된 제 31회 아시아 북아프리카 인문과학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gress of Human Sciences in Asia and North Africa)에 참석했다. 朴敎授는 제 13분과(법학 정치학 부문)에서 「한국法文化 발전에 있어서 兩班의 역할과 기능」(The Role and Function of the Yangban in the Development of the Legal Cu-

lture in Korea)이라는 基調講演을 했다. 후에 이 강연요지는 서울대학교 法學 제 24권 4호 (통권 56호, 1983.12)에 게재되었다.

韓獨修交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한독법률학회(회장 金曾漢 博士)는 한독수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문교부와 훔볼트 재단의 후원으로 1984년 9월 21일 22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 플라자 호텔(22층 덕수홀)에서 「法을 통한 한독교류 100년」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독일자연법 논의의 동향」(A.Hollerbach, Freiburg大)
- 「한국에서의 독일법수용」(崔鍾庫, 서울大)
- 「대륙법과 영미법에 있어서 선판례」(M.Kriele, Koln大)
- 「유보없는 기본권의 제한」(J.Isensee, Bonn大)
- 「한국헌법에 있어서 기본권의 제한문제」(허영, 연세大)
- 「독일형법에 있어서 생명의 보호」(A.Eser, Freiburg大)
- 「국제통일지급증권법의 제정을 위한 UNCITRAL의 역할」(W.von Marschall, Bonn大)
- 「독일상법과 한국상법의 비교」(손주찬, 연세大)
- 「한국민법에 미친 독일법의 영향」(김증한, 서울大)
- 「스위스 노동법에 있어서 해고보호의 개혁논의」(M.Rehbinder, Zürich大)
- 「한국노동법에 있어서 해고보호」(김형배, 고려大)

「서울法大 百年史」편찬위원회 구성

다가오는 1985년은 우리나라 최초의 近代的 法學敎育기관인 法官養成所가 설치(1895)된 지 90년이 되는 해이다. 이제 바야흐로 한국의 近代法學도 近百年의 연륜을 맞이하는데 이를 기념하여 서울法大 동창회(회장 이종성)에서는 「서울法大 百年史 편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위원장으로는 本會 會長 田鳳德 박사, 위원으로는 김증한 교수, 배재식 교수, 박병호 교수, 최종고 교수가 위촉되었다.

新刊案內

法史學硏究 제 7호(1983년 6月刊)가 발간된 이후에 참신한 法史學관계 단행본이 다수 출간되어 이 방면의 학자와 연구자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법사학계에 자극과 活力을 불어 넣고 있다. 이들의 출간을 모든 회원과 더불어 축하한다.

1. 丘秉朔著, 「韓國古代法史」(1984. 2.10)

本書는 제 1장 한국上古시대의 法의 연원과 법제 제 2장 고구려의 社會法制 제 3장 백제의 社會法制 제 4장 신라의 社會法制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자가 이전에 여러 지면을 통해서 발표했던 논문을 다소 보완하여 편집한 것이다. 저자

는 본서가 한국법문화의 발전을 社會法制史的 측면에서 서술한 것이며 한국법제사 개론의 제 1 단계로 출간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高大出版部, 학술연구총서 제 18 집, p.252〕

2. 崔鍾庫著, 「위대한 法思想家들」Ⅰ.Ⅱ.Ⅲ(1984-1985)

저자는 머리말에서 「법학을 가장 잘 배우는 길은 위대한 법률가의 생애를 배우는 것」이라는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각 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법학자 법률가의 법사상을 추적하여 역사적으로 연결시키면 그것도 法史를 파악하는 훌륭한 方法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서는 法史學的 가치도 크다고 하겠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서술된 외국의 비교될 만한 저술로는 Groβe Rechtsdenker der deutschen Geistesgeschichte (Erik Wolf, 1963), Men of Law; From Hammurabi to Holmes (William Seagle), 法思想家評傳(日本評論社, 1955), 近代法思想史의 인물들(木村龜二編著, 日本評論社, 1968) 등이 있다.

본서는 16세기 법의 순교자 토마스 모어에서부터 현대의 생존한 법률가에 이르기까지 총 35명의 국내외 법학자 법률가의 생애와 사상을 재미있고 요령있게 소개하고 있으며 각장의 뒤에는 자료로서 原文을 수록하고 있다.

〔學硏社, p.518〕

3. 알렉산더 홀러바흐著, 「法哲學과 法史學」(崔鍾庫·朴恩正譯, 1984. 9.25)

본서는 두 역자의 독일에서의 지도교수였던 A.Hollerbach 교수의 여러 논문을 역자의 편집으로 출판한 특이한 책으로 제 1 장 法哲學과 歷史(일반자연법과 기독교적 자연법, 프라이부르크 대학 법철학의 역사, 에릭 볼프의 생애와 법사상), 제 2 장 法哲學과 現實(이데올로기와 헌법 法에 있어서 자유문제, 자유주의와 교회), 제 3 장 法哲學과 敎會法(교회와 국가, 독일에 있어서 카톨리시즘과 법학, 독일 법과대학에서의 교회법)의 순서로 되어 있다.

홀러바흐는 法哲學·敎會法·法學史분야에 있어서 왕성한 학문적 업적과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학자로서 法哲學上으로는 Neo-Thomist, 法學史와 法思想史에 있어서는 Erik Wolf를 계승하는 입장이지만 그의 탁월한 업적과 평판은 교회법분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낯선 교회법의 영역에 보다 깊게 접근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된다.

〔三英社, p.248〕

4. 影印本(1984. 2)

- 新舊刑事法規大全(上)(下)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法令集(國文版, 英文版)
- 朝鮮刑事令, 朝鮮民事令

〔圖書出版 民族文化〕